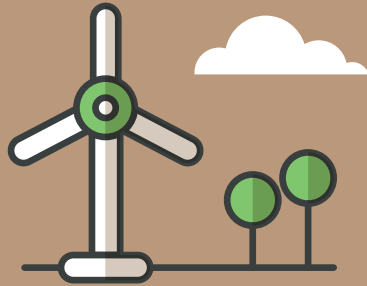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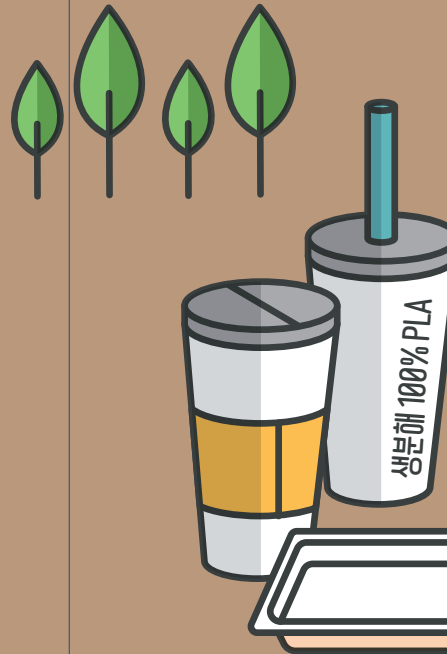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 알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에서 분해되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어요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

생분해 100%

생분해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세요!

잠깐!

혹시 제품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셨나요?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나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금지

- ▶ 최근 플라스틱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에서 분해' 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거나 '생분해 제품'이라는 등의 분해성을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하는 비닐봉투, 빨대, 멀칭필름, 식탁보 등 일회용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분해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거짓·과장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에 제품의 분해성에 대해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니,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분해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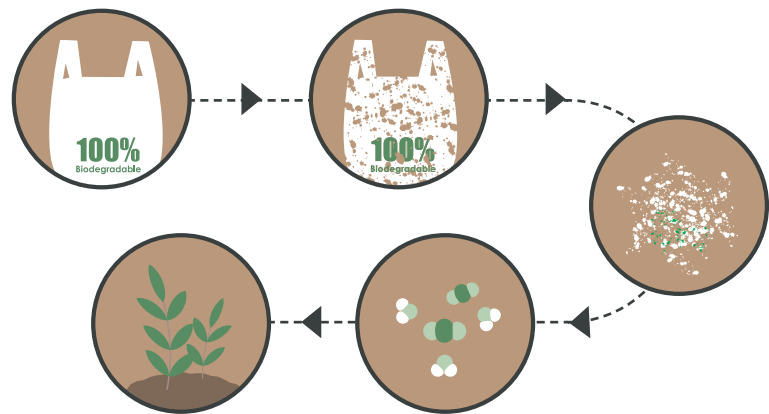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제대로 알고 바르게 표현하기

분해성이란?

- ▶ 분해성은 제품 또는 포장재를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이 특정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내에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합니다.(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조)
- ▶ 이 중 생분해는 사용 후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 KS M ISO 14855-1에 따라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된 생분해도가 표준물질의 생분해도의 90% 이상인 것을 의미(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EL724)



<분해성 관련 인증 예시>



환경표지(EL.724)



DIN Certco



OK Com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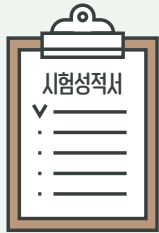
Seedling

- ▶ 그러므로 생분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생분해성수지제품)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거나, ISO 14855-1에 따른 시험 결과 생분해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그리고 이 경우 생분해 표현과 함께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환경표지 EL.724 등)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제표준(ISO 14855-1), 유럽표준(EN 13432), 미국표준(ASTM D 6400 또는 D 5338)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인증서(환경표지, DIN Certco, OK Compost, Seedling 등)

제품의 분해성을 표시할 때 꼭 알아두세요!

분해성을 주장할 때 주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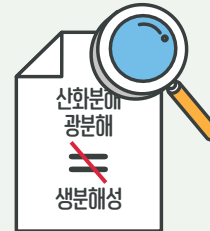
제품의 분해성에 대해 주장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생분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해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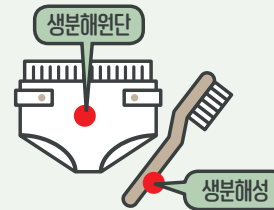
제품이 분해될 때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친환경', '자연친화적' 등 환경적 이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 종이로 만든 제품 등 원료가 일반적으로 분해 가능성이 있어도 제품 폐기 후 처리하는 환경에서 분해능력 및 분해비용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습니다.



제품 또는 구성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의 분해성을 생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분해성에 대한 주장은 제품, 포장, 원료 등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무엇이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100% 생분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실증이 어려우므로(시험 성적서에서 생분해도 100%를 확인할 수 없음) 잘못된 표현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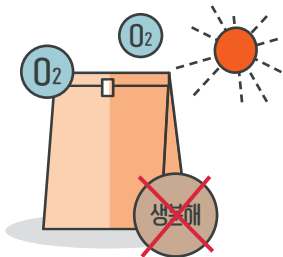


생분해 시험성적서는 특정한 조건(호기성 퇴비화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된다는 의미의 '자연소멸' 또는 '자연분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리기 쉬운 분해성 표시·광고, 함께 알아볼까요!

잘못된 분해성 주장의 사례

02 산화분해를 '생분해'로 주장



분해성에는 열분해, 광분해, 생분해, 산화분해, 산화생분해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는데, 이를 혼용하여 **산화분해** 등을 생분해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01 생분해 원료와 일반 플라스틱이 혼합된 제품을 '생분해'된다고 주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석유계 플라스틱(PE, PP, PS 등)은 분해되지 않으므로, **생분해되는 원료와 일반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 생분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03 일부 원료(첨가제) 또는 타 제품의 성적서를 근거로 분해성 주장



분해성을 주장하려면 해당 제품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원료(산화분해 촉진을 위한 첨가제 등) 또는 타 제품의 성적서(산화분해 첨가제 제조 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등)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04 생분해성을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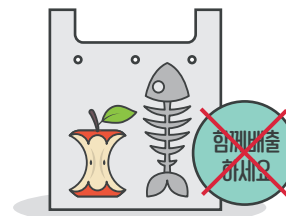
퇴비화 조건에 따른 생분해도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상 및 기간 등 시험 범위 항목 내에서 '생분해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성적서만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 개선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친환경' 주장은 부적절합니다.**

05 생분해 성적서를 근거로 '자연분해'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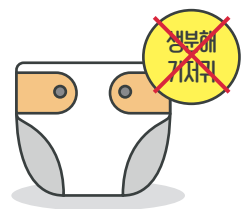
생분해 시험성적서는 시험방법에서 정의된 특정(퇴비화) 조건에서 분해됨을 확인한 결과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된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06 거름만이 생분해되므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라고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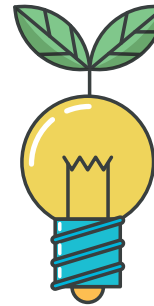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퇴비화 조건에서 180일에 90% 이상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처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료의 생분해성을 근거로 **자연순환 절차가 상이한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합해 투기토록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07 생분해되는 원단을 사용했으므로 생분해 기저귀로 주장



기저귀에는 원단 외에도 탄력이 있는 고무와 흡수체 등의 재료가 포함되므로, 생분해되는 원단을 사용했다라도 **비분해성 재료를 포함한 기저귀 전체가 생분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분해성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생분해 제품, 맞나요?

- 생분해 원료와 일반 플라스틱이 혼합된 제품은 '생분해'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 산화분해, 광분해 등은 '생분해'와 다릅니다.

✓ 분해성을 표시할 때 주의하세요!

- 제품, 포장, 원료 등 제품 구성성분 중 적용대상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 생분해성만을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어요.

✓ 분해성 표시·광고 시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주세요!

- '100% 생분해' :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하면 안돼요!
- '자연소멸', '자연분해' : 시험 조건이 자연상태에서 분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